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의 타당화*

Validation of a Short Form for the Children's Peer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1차원고접수: 2024.01.02. 수정원고접수: 2024.02.27. 최종게재결정: 2024.03.18.

최정원¹ · 임정하² · 정예지³¹고려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²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³고려대학교 대학원 지속가능생활 시스템융합전공, 석사과정Choi, Jungwon¹Lim, JungHa²Jeong, Yejee³¹Center for Human Ecology Research, Korea University²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³Interdisciplinary Program in Sustainable Living System,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척도(최정원, 2023)의 단축형을 구성하고, 단축형 척도의 심리측정학적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63명을 대상으로 또래 거부민감성과 친구와의 불안정애착, 또래관계문제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축형 척도는 총 17문항으로 거부예상, 우울·분노, 해석편향, 불안·위축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원척도와 단축형 척도의 상관분석 결과 두 점수의 동질성이 매우 높았다. 셋째, 단축형 척도의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 넷째, 단축형 척도는 CRSQ와 높은 관련성을 보여 준거관련 타당도가 적절하였다. 친구와의 불안정애착 및 또래관계문제 상위 30%집단이 하위 30%집단보다 또래 거부민감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단축형 척도의 집단비교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는 아동 연구 및 상담현장에서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학령기 아동,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 또래관계문제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hort form of the Peer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PRSQ; Choi, 2023) and assess its psychometric properties. A sample of 463 children in the 5th and 6th grades from elementary schools participated in the study. Self-report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on peer rejection sensitivity, insecure friendship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 problems. Exploratory factor analyses yielded a short form of the PRSQ consisting of 17 items with four factors including rejection expectation, anger/depression, interpretation bias, and anxiety/withdrawal. Correlation analyses demonstrated strong associations between scores of the original and the short forms. The short form of the PRSQ exhibited high internal consistency and split-half reliability. Furthermore, it displayed appropriate criterion-related validity, with substantial associations with the CRSQ. Children in the top 30 percent of insecure friendship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 problems scored significantly and practically higher on peer rejection sensitivity than those in the bottom 30%, supporting the known-group validity of the short form. The short form of the PRSQ serves as a valuable instrument for measuring peer rejection sensitivity of school-age children within research and counseling settings.

Keywords school-age children, peer rejection sensitivity, short form, peer relationship proble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수용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 그러나 아동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언제나 수용만을 경험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거부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거부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은 아동의 또래관계와 적응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어떤 아동들은 거부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아동들은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과민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또래 거부민감성은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또래관계에서 거절, 무시, 소외당하거나 비난받을 것이라 예상하여 불안, 분노 및 우

* 이 논문은 2023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임정하 (Lim, JungHa)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E-mail, jhlim@korea.ac.kr

Copyright © 2024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울을 느끼며 또래의 반응을 편향되게 해석하는 성향을 의미한다(최정원, 2023).

여성가족부(2023)에 따르면, 아동들의 주요 고민은 또래관계와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의 발달 특성상 여러 사회적 관계 중에서도 또래 집단은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동기는 또래 집단으로부터 정서적 안정감이나 소속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을 배우기도 하기 때문이다(정옥분, 2018). 특히 12 ~ 14세의 아동 후기에 이르면 친밀감에 근거한 우정관계가 발달하여 단짝 친구를 만드는 등(이태연, 2021; Bigelow & LaGaipa, 1980)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또래관계는 보다 성숙하게 되며 또래로부터 수용 받는 것이 보다 중요해진다. 또래 집단으로부터 수용 받지 못하고 거부를 경험한 아동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외로움이나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학업 수행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acete, Tinoco, Perrin, & Remírez, 2021; Liu et al., 2018). 또한 한국 아동의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역시 친구관계로 나타나 또래관계는 아동 후기의 학교생활적응 및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의철, 박영신, 2004; 박영아, 최지영, 2023). 따라서 또래관계에서의 거부 경험은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또래관계에서의 거부에 민감한 아동은 또래관계문제나 심리적 문제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또래 거부민감성에 관심을 갖고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래 거부민감성을 살펴본 초기 연구들(홍상황, 박현아, 2014; 홍상황, 이경연, 2013; Shujja, Malik, & Adil, 2019)에서는 또래관계나 교사와의 관계 등의 맥락에서 거부민감성을 평가하는 척도(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CRSQ]; Downey, Lebolt, Rincón, & Freitas, 1998) 중 또래관계와 관련된 일부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들 연구들을 바탕으로 또래관계라는 보다 구체적인 맥락에서 거부민감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거부민감성은 모든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

니라 맥락의 특성에 따라 활성화 여부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최정원, 임정하, 2023). 그러나 기존 CRSQ의 또래관계와 관련된 일부 문항을 활용하여 또래 거부민감성을 측정하는 것은 또래관계 맥락에서 거부민감성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Innamorati et al., 2014; Preti, Casini, Richetin, De Panfilis, & Fontana, 2020; Zimmer-Gembeck, Nesdale, Webb, Khatibi, & Downey, 2016). 또한 타당도 검증 없이 일부 문항만을 선별해 활용하는 것은 척도의 원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CRSQ는 14가지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하위 문항들로 구성되어 비교적 질문지의 길이가 길고 문항이 많아 대규모 조사나 임상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최근 또래관계 고유의 맥락에서 거부민감성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또래 거부민감성 척도(최정원, 2023)가 개발되었다. 또래 거부민감성 척도는 해석편향이라는 부호화, 거부예상이라는 예상 및 믿음, 우울·분노와 불안·위축이라는 정서 등 또래 거부민감성의 다양한 인지-정서적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척도는 거부민감성의 하위특성을 분리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긴 지문과 여러 문항을 읽어야 하는 시나리오 형식에서 벗어나 아동이 보다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더불어, 또래 거부민감성 척도는 적절한 심리측정학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정원, 2023). 이 척도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우울·분노, 거부예상, 불안·위축, 해석편향의 네 가지 1차 요인과 이를 반영하는 또래 거부민감성이라는 하나의 2차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래 거부민감성 척도는 CRSQ와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자기기대 척도, 친구와의 불안정애착 척도와는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반면 일반적 맥락에서 측정한 거부민감성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나타냈다. 또한 아동의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과도 높은 관련성을 보여 준거관련 타당도도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측면에서는 Cronbach의 α 계수와 반분 신뢰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또래 거부민감성 척도(최정원, 2023)는 또래 관계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거부민감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심리측정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척도는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항 수 측면에서 보다 간명하게 구성할 수 있다면 사용 목적에 따라 일부 연구나 현장에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래 거부민감성 척도에서는 다양한 거부 상황에서 느끼는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묻고 있다. 이로 인해 응답자는 일부 문항들이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묻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응답자가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여러 구성개념을 측정해야 하는 연구현장에서 단축형을 구성하여 사용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단축형 척도는 응답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며 (Hagtvet & Sipos, 2016) 검사 자체를 더 간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특성을 평가하는 임상현장이나 연구환경에서 매우 유용하다(Hawthorne, 2006; Hawthorne, Sansoni, Hayes, Marosszeky, & Sansoni, 2014). 또한 단축형을 활용하는 경우, 주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구성개념을 평가할 수 있으며 하나의 구성개념도 더 짧은 시간 내에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를 구성하고자 한다. 또래 거부민감성 원척도와 동질성이 높은 단축형 척도를 구성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후속 연구를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를 구성한 후 단축형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의 Cronbach의 α 와 반분 신뢰도를 산출하여 내적 합치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관련 척도들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의 타당도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CRSQ의 또래관련 상황을 활용하여 단축형 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래 거부민감성 원척도는 CRSQ

의 또래관련 상황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정원, 2023) 단축형 척도와의 관련성 역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친구와의 불안정애착과 또래관계문제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하여 또래 거부민감성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래 거부민감성은 애착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또래관계에서의 거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친구와의 불안정애착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 실제로 또래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아동들은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불안 및 분노를 보다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정원, 2023). 또한 또래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은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순종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등 또래관계에서 여러 어려움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상환, 박현아, 2014).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친구와의 불안정애착과 또래관계문제를 바탕으로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의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를 구성하고, 원척도와의 동질성 및 심리측정학적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단축형 척도를 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단축형 척도와 원척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후, 단축형 척도와 원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하위요인 간 상관의 패턴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단축형 척도의 심리측정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뢰도를 산출하고, CRSQ와의 관련성을 통해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며 친구와의 불안정애착과 또래관계문제를 활용하여 집단비교 타당도(known-group validity)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또래 거부민감성 척도의 우수한 심리측정학적 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단축형 척도를 타당화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의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와
원척도의 동질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 4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들 중 5학년 여학생은 115명(26.6%), 5학년 남학생은 106명(24.5%), 6학년 여학생은 104명(24.1%), 6학년 남학생은 107명(24.8%)이었다. 연구대상 아동의 아버지 교육수준은 대학원 졸업 143명(33.1%), 대학교 졸업 86명(19.9%), 전문대 졸업 67명(15.5%),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명(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 교육수준은 대학원 졸업 132명(30.6%), 대학교 졸업 113명(26.2%), 전문대 졸업 65명(15%),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명(4.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은 보건·의료직 65명(15%), 경영·사무·금융·보험직 59명(13.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37명(8.6%)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 직업은 농림어업직 79명(18.3%), 무직 66명(15.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군인 50명(11.6%)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척도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의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최정원(2023)이 개발한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우울·분노(10문항), 거부예상(8문항), 불안·위축(5문항), 해석편향(4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분노는 또래관계에서 거부당할 것을

예상할 때 서운함, 슬픔, 화, 짜증 등을 느끼는 경향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친한 친구가 나 아닌 다른 친구와 노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날 것 같다”, “친한 친구들이 자기들끼리만 온라인 상호작용(예: 온라인 게임, 그룹채팅방, 화상모임 등)을 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다” 등이 있다. 거부예상은 또래관계에서 거부당할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친구들에게 같이 놀자고 하면 친구들이 싫다고 할 것 같다”, “친구에게 준비물을 빌려달라고 하면 친구가 싫다고 할 것 같다” 등이 있다. 불안·위축은 또래관계에서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거부당할까봐 긴장하거나 의기소침해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친구와 다툼을 때, 사과를 해도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까봐 조마조마하다”,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게 실수였어도 친구들은 나를 비난할 것 같다” 등이 있다. 해석편향은 또래관계 내 집단상황에서 사소한 거부단서를 부정적으로 확대하여 판단하고 이해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모둠활동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장난이라도 게임이나 놀이를 못한다고 친구들이 놀리면 나를 깔본다는 생각이 든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형식으로 아동이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의 총합을 문항 수로 나눈 평균 점수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정원(2023)은 수렴 및 변별 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고, Cronbach의 α 값은 전체 .93, 우울·분노 .91, 거부예상 .88, 불안·위축 .85, 해석편향 .84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 값은 전체 .93, 우울·분노 .90, 거부예상 .89, 불안·위축 .83, 해석편향 .79로 나타났다.

2) 아동용 거부민감성 척도

또래관계 맥락에서의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동료들(1998)이 개발한 아동용 거부민감성 척도(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CRSQ)

를 토대로 박지윤과 정영숙(2008)이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번안 및 수정한 질문지를 본 연구자가 어색한 표현 및 응답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또래관련 상황과 교사관련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 맥락에서의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고자 또래관련 상황(8가지)만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각 상황에 대하여 세 가지 예기정서(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우울)와 거부예상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조별로 의견을 나누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조 아이들이 내 의견을 들어줄까? 아닐까?” 생각할 때, 나는 불안(혹은 화, 우울)할까?”와 “아이들이 내 의견을 들어줄까?” 등의 질문들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 6점 Likert 형식으로 아동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Downey와 동료들(1998)은 예기정서 점수와 거부예상 점수의 곱을 통해 점수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거부불안민감성(예기불안 × 거부예상), 거부분노민감성(예기분노 × 거부예상), 거부우울민감성(예기우울 × 거부예상)의 세 가지 점수를 산출하였다. Downey와 동료들(1998)은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박지윤과 정영숙의 연구(2008)에서 Cronbach의 α 값은 전체 .96, 거부불안민감성 .93, 거부분노민감성 .91, 거부우울민감성 .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 값은 전체 .94, 거부불안민감성 .87, 거부분노민감성 .80, 거부우울민감성 .86으로 나타났다.

3) 친구와의 불안정애착 척도

친한 친구에 대한 불안정애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Wilkinson(2008)이 개발한 청소년 또래애착 척도 (Adolescent Friendship Attachment Scale)를 최영희, 김민선과 서영석(2012)이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설문지를 본 연구자가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애착 수준을 측정하며, 안정애착, 불안/양가애착, 회피애착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애착 수준을 측정하고자 불안/양가애착(8문항)과 회피애착(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불안/양가애착은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과 분노를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 친구가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봐 걱정된다”, “내가 원하는 정도로 내 친구와 가깝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등이 있다. 회피애착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의지하는 것이 어려운 특성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 친구에게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내 친구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5점)’까지 5점 Likert 형식으로 아동이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의 총합을 문항 수로 나눈 평균 점수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애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영희와 동료들(2012)은 수렴 및 준거관련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Cronbach의 α 값은 불안/양가애착 .78, 회피애착 .70으로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 값은 전체 .84, 불안/양가애착 .82, 회피애착 .69로 나타났다.

4) 또래관계문제 척도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정혜원, 김종미와 홍상황(2008)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아동용 교우관계문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크게 냉담하고 억제된 또래관계문제, 순종적 또래관계문제, 간접적인 또래관계문제를 측정한다(김영환, 홍상황, 1999; 홍상황, 박현아, 2014; Weinryb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또래 거부민감성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 예측되는 순종적인 또래관계문제를 측정하였다. 순종적 또래관계는 비주장(8문항), 과순응(8문항), 자기희생(8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비주장 요인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요구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낮은 정도를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친구들과의 정이나 의리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많다” 등이 있다. 과순응 요인은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순종적이며 자신의 분노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화가 나 있더라도 표현하기가 어렵다”, “다른 아이들의 말을 너무 쉽게 따른다” 등이 있다. 자기희생 요인은 친구관계에서 타인의 욕구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배려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다른 아이의 기분에 맞추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다른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형식으로 아동이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의 총합을 문항 수로 나눈 평균 점수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에서 순종적인 문제를 많이 경험함을 의미한다. 정혜원과 동료들(2008)은 수렴 및 변별 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고, Cronbach의 α 값은 전체 .94, 비주장성 .81, 과순응성 .77, 자기희생 .75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 값은 전체 .94, 비주장성 .87, 과순응성 .84, 자기희생 .8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연구대상 모집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연구자가 전화로 연락하여 연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후 교감 또는 부장교사가 허가한 총 8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연구와 관련해 협조해줄 5, 6학년 담임교사에게 연구내용과 절차를 설명하고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아동들에게 담임교사가 연구목적과 응답방식, 비밀보장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다. 아동들에게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명시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아동들에게 질문지를 주고,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질문지 배부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차 배부 및 수거는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2차 배부 및 수거는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졌다. 질문지 응답에는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참여 아동과 협조 교사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배부한 질문지 463부는 모두 회수되었고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질문지 31부를 제외한 432부(93.3%)를 실제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단축형 척도의 문항 구성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 들어가기 전 KMO의 표본적절성 측정치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치를 산출하여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주성분 요인분석과 직접 오블리민 방식의 사각회전을 이용해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을 선정하였다. 둘째, 단축형과 원척도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축형과 원척도 점수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단축형과 원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하위요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단축형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하위영역별 Cronbach의 α 계수와 반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준거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와 아동용 거부민감성 척도(CRSQ)의 또래관련 상황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비교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친구와의 불안정 애착과 또래관계문제의 각 상하위 30%집단의 또래 거부민감성 차이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t 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Levene의 동질성 검증을 통해 비교되는 집단의 오차분산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 구성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의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27개의 문항을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수집된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

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모든 문항의 왜도는 -0.37에서 1.57 사이, 첨도는 -1.13에서 2.26 사이로 나타났다. 각각 절댓값이 2와 7 이내라면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어(West, Finch, & Curran, 1995) 본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KMO값은 .93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도 유의한 수준($\chi^2_{351} = 5843.01, p < .001$)으로 나타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의 적절성이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원척도 개발 시 사용되었던 방식과 동일하게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직접 오블리민 방식의 사각회전을 사용하였다. 원척도의 요인 개수를 바탕으로 요인의 수를 4개로 지정한 후, 1차 요인구조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다른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의 차이가 .15 이상 나지 않아 두 요인 이상에 걸쳐 비슷한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을

기준으로(Worthington & Whittaker, 2006) 3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그런 후, 24문항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55 미만인 문항 5문항을 제거하였다. 이어서 19문항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여 두 요인 이상에 걸쳐 비슷한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2개 문항을 제외하고 17문항을 산출하였다. 이들 17문항의 KMO값은 .9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도 유의한 수준($\chi^2_{136} = 3546.09, p < .001$)으로 나타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이들 17문항을 이용한 요인분석에서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4개였다. 나아가 총 설명변량이 68%임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4 요인 17문항을 확정하였다. 산출된 최종 문항, 요인구조 및 요인부하량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단축형에 포함된 총 17문항은 모두 원척도에서도 단축형과 동일한 하위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하위요인에 대한 명칭은 원척도와 동일하게 정

표 1. 토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산출된 문항, 요인구조 및 요인부하량

번호	문항내용	요인				h ²
		1	2	3	4	
20	친구들에게 같이 놀자고 하면 친구들이 싫다고 할 것 같다.	.88	.02	.02	-.03	.76
18	친구들이 온라인 상호작용(예: 온라인 게임, 그룹채팅방, 화상모임 등)에 나를 끼워주지 않을 것 같다.	.77	-.10	-.08	-.02	.61
24	친구에게 같이 놀자고 하면 싫다고 할까 봐 불안하다.	.74	-.03	.04	.16	.72
19	내 생일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해도 아무도 오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	.72	-.04	-.04	.11	.61
26	친구에게 준비물을 빌려달라고 하면 친구가 싫다고 할 것 같다.	.72	.02	.14	-.02	.60
9	친한 친구들이 나를 빼고 놀고 있으면 화가 날 것 같다.	.10	-.82	.07	-.19	.71
4	친한 친구들이 자기들끼리만 온라인 상호작용(예: 온라인 게임, 그룹채팅방, 화상모임 등)을 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다.	-.12	-.81	-.06	.11	.63
25	친한 친구들이 나를 빼고 놀고 있으면 우울할 것 같다.	.09	-.79	-.09	.08	.69
21	친한 친구들이 자기들끼리만 온라인 상호작용(예: 온라인 게임, 그룹채팅방, 화상모임 등)을 하면 열 받을 것 같다.	.05	-.77	.04	-.02	.64
13	친한 친구가 나 아닌 다른 친구와 노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날 것 같다.	-.02	-.75	.10	-.00	.62
5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07	-.69	.06	.08	.60
16	모둠활동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짜증이 날 것 같다.	-.06	-.06	.87	.03	.79
7	모둠활동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09	-.13	.83	.05	.75
17	모둠활동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	.22	.09	.75	-.00	.67
23	친한 친구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내가 실수한 것이 있을까 봐 조마조마하다.	-.06	-.06	.00	.92	.84
22	친한 친구와 같이 있는데 친구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10	-.00	-.05	.85	.78
10	친구와 다투었을 때, 사과를 해도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까 봐 조마조마하다.	.08	.02	.12	.64	.50
고유치		6.73	2.05	1.51	1.22	
설명변량(%)		39.60	12.06	8.87	7.16	
누적변량(%)		39.60	51.66	60.53	67.69	

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거부예상(5문항)으로 또래관계에서 거부당할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요인은 우울·분노(6문항)로 또래관계에서 거부당할 것을 예상할 때 서운함, 슬픔, 화, 짜증 등을 느끼는 경향을 의미한다. 세 번째 요인은 해석편향(3문항)으로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부로 해석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네 번째 불안·위축(3문항)은 또래관계에서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거부당할까 봐 긴장하거나 의기소침해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2.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와 원척도 간의 동질성

확정된 17문항의 단축형 척도 응답치와 27문항의 원척도 응답치의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단축형 척도 전체 점수와 원척도 전체 점수의 상관은 .98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척도의 동일한 하위요인 간 상관 역시 .95 ~ .98로 나타났다. 이는 두 척도의 동질성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보여준다.

표 2. 원척도와 단축형 척도의 상관

	단축형 척도				
	거부예상	우울·분노	해석편향	불안·위축	전체
원척도					
거부예상	.97***	.44***	.49***	.64***	.79***
우울·분노	.46***	.97***	.50***	.42***	.82***
해석편향	.42***	.49***	.95***	.34***	.65***
불안·위축	.58***	.42***	.40***	.98***	.72***
전체	.78***	.82***	.72***	.76***	.98***

*** $p < .001$.

표 3. 단축형 척도와 원척도의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와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단축형					원척도				
	1	2	3	4	5	1	2	3	4	5
1. 거부예상	-					-				
2. 우울·분노	.46***	-				.43***	-			
3. 해석편향	.43***	.46***	-			.51***	.53***	-		
4. 불안·위축	.52***	.38***	.29***	-		.63***	.44***	.43***	-	
5. 전체	.79***	.84***	.68***	.68***	-	.80***	.84***	.73***	.76***	-
M	1.89	2.51	2.20	2.53	2.28	1.86	2.37	2.17	2.61	2.23
SD	0.76	0.89	0.91	0.94	0.68	0.79	0.96	0.97	1.03	0.71

*** $p < .001$.

추가적으로,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척도 단축형과 원척도의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하위요인들 간의 관련성 패턴을 살펴보았다(표 3 참조). 단축형 척도와 원척도 모두 평균점수는 불안·위축이 가장 높고, 우울·분노, 해석편향, 거부예상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간 상관 패턴 역시 단축형 척도와 원척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3.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1)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의 신뢰도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의 α 와 반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표 4 참조). Cronbach의 α 를 산출한 결과, 또래 거부민감성 전체 .90 하위요인별로는 .78 ~ .88로 나타났다. Spearman-Brown 공식을 이용해 반분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전체 문항 .77 하위요인별로는 .77 ~ .88로 나타났다.

2)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의 타당도

(1) 준거관련 타당도

아동용 거부민감성 척도(CRSQ)의 또래관련 상황 점수를 준거로 하여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산출하였다(표 5 참조). 그 결과, 또래 거부민감성 전체 점수는 CRSQ 또래관련 상황의 거부불안민감성($r = .55, p < .001$), 거부불노민감성($r = .51, p < .001$), 거부우울민감성($r = .52, p < .001$)과 중간 수준 이상의 관련성을 보였다.

(2) 집단비교 타당도

친구와의 불안정애착과 또래관계문제의 각 상위 30%집단과 하위 30%집단의 또래 거부민감성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먼저, 친구와의 불안정애착이 높은 상위 30%집단($M = 2.70, SD = 0.68$)은 하위 30%집단($M = 1.75, SD = 0.50$)에 비해 또래 거부민감성 전체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 = 13.42, p < .001$). 실질적 유의성 측면에서 효과크기 Cohen의 d 값은 1.59로 나타나 두 집단의 점수분포상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거부민감성의 모든 하위요인에 대해 친구와의 불안정애착 상·하위집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거부예상 요인에 대한 효과 크기가 1.42로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또래관계문제 수준이 높은 상위 30%집단($M = 2.73, SD = 0.68$)은 하위 30%집단($M = 1.82, SD = 0.54$)에 비해 또래 거부민감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 = 8.93, p < .001$). 실질적 유의성 측면에서 효과 크기 Cohen의 d 값은 1.48로 나타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거부민감성의 모든 하위요인에 대해 또래관계문제 상·하위집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불안·위축 요인에 대한 효과 크기가 1.57로 크게 나타났다.

표 4.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의 신뢰도

	문항 수	Cronbach의 α	반분 신뢰도
거부예상	5	.86	.86
우울·분노	6	.88	.88
해석편향	3	.81	.77
불안·위축	3	.78	.86
전체	17	.90	.77

표 5.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

	CRSQ 또래상황		
	거부불안민감성	거부불노민감성	거부우울민감성
거부예상	.52***	.51***	.54***
우울·분노	.36***	.35***	.35***
해석편향	.33***	.39***	.31***
불안·위축	.47***	.30***	.37***
전체	.55***	.51***	.52***

*** $p < .001$.

표 6.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에 대한 친구와의 불안정애착 및 또래관계문제 상하위 30% 집단 간 차이

	친구와의 불안정애착 ($n = 432$)				또래관계문제 ($n = 238$)			
	하위30%	상위30%	t	Cohen's d	하위30%	상위30%	t	Cohen's d
	$M(SD)$ ($n = 134$)	$M(SD)$ ($n = 145$)			$M(SD)$ ($n = 78$)	$M(SD)$ ($n = 70$)		
거부예상	1.38(0.40)	2.35(0.88)	12.09***	1.42	1.51(0.48)	2.41(0.96)	7.07***	1.19
우울·분노	1.92(0.87)	2.88(0.91)	8.99***	1.08	2.02(0.85)	2.79(0.91)	5.37***	0.87
해석편향	1.71(0.90)	2.57(1.02)	7.45***	0.89	1.81(0.73)	2.53(0.96)	5.05***	0.84
불안·위축	1.97(0.82)	2.97(0.91)	9.62***	1.16	1.94(0.69)	3.21(0.91)	9.43***	1.57
전체	1.75(0.50)	2.70(0.68)	13.42***	1.59	1.82(0.54)	2.73(0.68)	8.93***	1.48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를 구성하며, 원척도와 동질성을 살펴보고, 단축형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주요 연구결과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는 총 17문항으로 기존의 원척도와 동일하게 거부예상, 우울·분노, 해석편향, 불안·위축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단축형에 포함된 총 17문항은 모두 원척도와 동일한 하위요인에 포함되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항이 축소되어도 단축형은 원척도와 동일한 4요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문항들이 안정적으로 동일한 하위요인에 포함됨을 보여준다. 또한,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단축형 척도의 구성은 또래 거부민감성이 예상 및 믿음, 편향된 부호화, 정서 등의 다양한 인지-정서적 단위들로 구성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래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이 거부를 예상하거나 이때 분노와 우울, 불안 등을 느끼고 편향된 해석을 하는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최정원, 2023) 본 단축형 척도는 이러한 또래 거부민감성의 다양한 특성을 보다 간명하고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단축형 척도를 이용한 측정치는 원척도의 측정치와 동질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와 하위요인 간 상관의 패턴 역시 원척도와 단축형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가 기존 27개 문항의 원척도와 동질성이 상당히 높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특성을 한 번에 평가해야 하는 현장에서 원척도와 동질적인 단축형을 활용한다면 또래 거부민감성 측정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는 또래 거부민감성 관련 후속 연구의 촉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Kemper, Trapp, Kathmann, Samuel과 Ziegler(2019)은 도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단

축형과 긴 형태의 원척도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개인의 현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개입을 위해 정확한 분류가 필요하거나 시간에 따른 개인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 긴 형태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에, 연구대상자가 많은 대규모 조사에서는 단축형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 거부민감성과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조사 연구에서는 아동 개개인의 점수보다는 해당 표본의 점수를 바탕으로 또래 거부민감성과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 계수를 통계적으로 추론하는 것에 보다 관심이 있다. 이처럼 개개인의 특성이 아닌, 표본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단축형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피로도와 부정적인 반응을 줄이고 응답률을 높이는 등(Credé, Harms, Niehorster, & Gaye-Valentine, 2012; Edwards, Roberts, Sandercock, & Frost, 2004)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심리측정학적 특성 중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Cronbach의 α 계수와 반분 신뢰도 계수를 살펴본 결과, 전체 문항의 경우 두 지표 모두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우울·분노 및 거부예상 요인은 두 지표에서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불안·위축 및 해석편향 요인도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존 원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Cronbach의 α 값은 전체 .93, 각 하위요인별로는 .84 ~ .9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반분 신뢰도는 전체 .94, 하위요인별 .72 ~ .90으로 나타났다. 단축형과 원척도의 신뢰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단축형보다 원척도의 신뢰도가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뢰도가 문항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적은 수로 구성된 단축형의 내적 합치도 값은 높은 편이라 판단할 수 있다.

넷째, 심리측정학적 특성 중 타당도와 관련하여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SQ의 또래관련 상황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단축형 척도는 CRSQ의 또래관련

상황 측정치와 적절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준거관련 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원척도 역시 CRSQ의 토래관련 상황 측정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최정원, 2023)와 일관된다.

친구와의 불안정애착과 토래관계문제의 상·하위 집단을 구분해 토래 거부민감성 점수를 살펴본 결과, 이들의 토래 거부민감성 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장 친한 친구와 불안정애착 수준이 높거나 토래관계에서 지나치게 순종적이고 위축된 경향으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상위집단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하위집단 아동들보다 토래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크기를 통해 살펴본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아동들의 토래 거부민감성 점수들의 실질적 분포도 큰 차이를 보여 토래 거부민감성은 친구와의 불안정애착이나 토래관계문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변별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토래 거부민감성이 아동기 토래관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토래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가장 가까운 토래와의 관계에서도 불안을 느끼며, 토래에게 지나치게 순종적이거나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등의 토래관계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최정원, 2023; 홍상환, 박현아, 2014)와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거부예상 요인에 대한 친구와의 불안정애착 상·하위집단의 효과와 불안·위축 요인에 대한 토래관계문제 상·하위집단의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불안정애착 수준이 높은 아동들의 경우 거부당할 것이라 예상하는 경향이 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예상 및 신념을 변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나 집단상담 현장에서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토래로부터 수용 받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을 것이다. 토래관계에서 지나치게 순종적이고 배려하여 자신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를 경험하는 아동들은 토래관계에서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거부당할까 봐 긴장하거나 의기소침해지는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이들이 토래관계에서 느끼는 긴장

과 스트레스, 위축된 마음을 이완시키고 적절히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 아동 부모의 대부분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이를 고려해볼 때, 본 연구는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경제적 배경의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Downey et al., 1998)를 통해 아동들이 불안 외에도 분노 정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거부 상황에서 보이는 특성이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아동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확장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성한 단축형 척도의 추가적인 신뢰도나 타당도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바탕으로 단축형 척도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일 모집단의 표본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단축형 역시 원척도와 동일한 위계적 요인구조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념 신뢰도를 산출하는 등 추가적인 타당도와 신뢰도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토래 거부민감성을 보다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원척도와 동질성과 심리측정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추후 본 단축형 척도가 토래관계 및 토래 거부민감성 관련 연구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영환, 홍상환 (1999). 대인관계 평가도구의 표준화연구: 대인관계문제제검사와 원형척도. *성곡논총*, 30(3), 537-594.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박영아, 최지영 (2023).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30(3), 67-83.
<https://doi.org/10.15284/kjhd.2023.30.3.67>
- 박지윤, 정영숙 (2008). 아동의 거절상황 구성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2), 15-37.
- 여성가족부. (2023). 2022 청소년 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이태연 (2021). *인간관계 심리학* (2판). 서울: 신정.
- 정옥분 (2018).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혜원, 김종미, 홍상환 (2008). 아동용 교우관계문제제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1-25.
<https://doi.org/10.16983/kjsp.2008.5.1.1>
- 최영희, 김민선, 서영석 (2012). 한국판 청소년포래애착 척도 타당화 연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273-296.
- 최정원 (2023). 아동용 포래 거부민감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정원, 임정하 (2023). 아동의 포래 거부민감성 구성요인에 대한 기초연구: 문헌고찰과 아동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6(2), 145-162.
<https://doi.org/10.17641/KAPT.26.2.4>
- 홍상환, 박현아 (2014). 아동의 포래 거부민감성과 포래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5(1), 55-74.
<https://doi.org/10.20972/kjee.25.1.201403.55>
- 홍상환, 이경연 (2013). 포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포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4(2), 283-315.
<https://doi.org/10.15753/aje.2013.14.2.012>
- Bacete, F. J. G., Tinoco, V. M., Perrin, G. M., & Remírez, J. F. R. (2021). Stability of peer acceptance and rejection and their effect on academic performance in primary education: A longitudinal research. *Sustainability*, 13(5), 1-28.
<https://doi.org/10.3390/su13052650>
- Bigelow, B. J., & LaGaipa, J. J. (1980). The development of friendship values and choice. In H. C. Foot, A. J. Chapman, & J. R. Smith (Eds.), *Friendship and social relations in children* (pp. 15-44).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Credé, M., Harms, P., Niehorster, S., & Gaye-Valentine, A. (2012). An evaluation of the consequences of using short measures of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4), 874-888.
<https://doi.org/10.1037/a0027403>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https://doi.org/10.1037/0022-3514.70.6.1327>
- Downey, G., Lebolt, A., Rincón, C., & Freitas, A. 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4), 1074-1091.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8.tb06161.x>
- Edwards, P., Roberts, I., Sandercock, P., & Frost, C. (2004). Follow-up by mail in clinical trials: Does questionnaire length matter? *Controlled Clinical Trials*, 25(1), 31-52.
<https://doi.org/10.1016/j.cct.2003.08.013>
- Hagtvet, K., & Sipos, K. (2016). Creating short forms for construct measures: The role of exchangeable forms. *Pedagogika*, 66(6), 689-713.
<https://doi.org/10.14712/23362189.2016.346>
- Hawthorne, G. (2006). Measuring social isolation in older adults: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friendship sca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77(3), 521-548.
<https://doi.org/10.1007/S11205-005-7746-Y>
- Hawthorne, G., Sansoni, J., Hayes, L., Marosszeky, N., & Sansoni, E. (2014). Measuring patient satisfaction with health care treatment using the Short Assessment of Patient Satisfaction measure delivered superior and robust satisfaction estimates.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67(5), 527-537.
<https://doi.org/10.1016/j.jclinepi.2013.12.010>
- Innamorati, M., Balsamo, M., Fairfield, B., Fabbriatore, M., Tamburello, A., & Saggino, A. (2014).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adult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A comparison of three factor models. *Depression Research and Treatment*, 2014. Article ID 972424.
<https://doi.org/10.1155/2014/972424>
- Kemper, C. J., Trapp, S., Kathmann, N., Samuel, D. B., & Ziegler, M. (2019). Short versus long scales in clinical assessment: Exploring the trade-off between resources saved and psychometric quality lost using two measures of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Assessment*, 26(5), 767-782.
<https://doi.org/10.1177/1073191118810057>
- Liu, J., Bowker, J. C., Coplan, R. J., Yang, P., Li, D., & Chen, X. (2018). Evaluating links among shyness, peer

- relations,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Chinese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9(3), 696-709.
<https://doi.org/10.1111/jora.12406>
- Preti, E., Casini, E., Richetin, J., De Panfilis, C., & Fontana, A. (2020). Cognitive and emotional components of rejection sensitivity: Independent contributions to adolescent self-and interpersonal functioning. *Assessment*, 27(6), 1230-1241.
<https://doi.org/10.1177/1073191118817866>
- Shujja, S., Malik, F., & Adil, A. (2019). Teacher rejection sensitivity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mong adolescents: Moderating role of peer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s*, 29(2), 18-36.
- Weinryb, R. M., Gustavsson, J. P., Hellström, C., Andersson, E., Broberg, A., & Rylander, G. (1996). Interpersonal problem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Psychometric studies of the Swedish version of the IIP.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1), 13-23.
[https://doi.org/10.1016/0191-8869\(95\)00137-U](https://doi.org/10.1016/0191-8869(95)00137-U)
- West, S., Finch, J., & Curran, P.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 Wilkinson, R. B. (2008). Development and properties of the adolescent friendship attachment sca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 1270-1279.
<https://doi.org/10.1007/s10964-006-9141-7>
- Worthington, R. L., & Whittaker, T. A. (2006). Scale development research: A content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for best practic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6), 806-838. <https://doi.org/10.1177/0011000006288127>
- Zimmer-Gembeck, M. J., Nesdale, D., Webb, H. J., Khatibi, M., & Downey, G. (2016). A longitudinal rejection sensitivity model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Unique roles of anxiety, anger, blame, withdrawal and retribu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7), 1291-1307.
<https://doi.org/10.1007/s10802-016-0127-y>